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찬송가 30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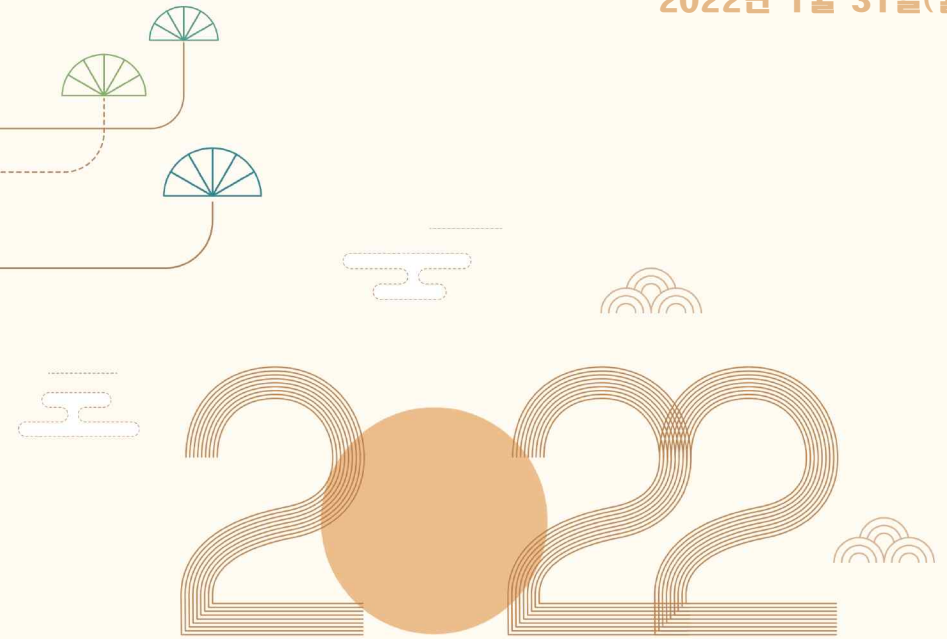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 - 창세기 28장 15절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설날 가정예배

 **한마음교회**

예배순서

인도자 말은이

인사 및 예식사

말은이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부모님과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가 384장 다 갈 이

공동기도문 말은이

(가족 중 한 분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설 명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과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도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 28:15 말은이

설 교 “하나님이 안내자 되십니다.” 말은이

(가족 중 한 분이 설교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찬 송 가 301장 다 갈 이

주 기도문 다 갈 이

떡담나누기

새해를 맞으며 가족 간에 덕담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안내자 되십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안내인을 동반합니다. 안내인은 길을 안내하며 등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의 삶에 안내인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는 부모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삶의 안내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인생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안내인이라면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외삼촌에게 가야하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컴컴한 밤을 홀로 지새야 했습니다. 안내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 완벽한 안내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민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처럼 약속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강하시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의 설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안내자 되십니다.”